

미국, 세계 가정용 PC 시장의 55% 점유

전세계 가정용 PC 시장 규모는 현재 24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55%가 미국에 집중돼 있다.

매사추세츠주 Framingham에 있는 시장조사 업체 International Data Corp.(IDC)에 따르면, 미국은 최소한 금세기 말까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정용 PC 시장으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IDC는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가정용 PC 사용자들이 대부분이 매주 18시간씩 가정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시간의 약 80%는 업무용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회사 일을 가정에서도 처리하는 사람들이 가정용 PC에 대한 수요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Motorola, 염기형 마이크로 콘트롤러 개발

Motorola는 사용자들이 용도에 따라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마이크로 콘트롤러 신제품 "68HC05" 시리즈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마이크로 콘트롤러 중에는 5만개 물량 기준 95센트에 공급 되는 모델도 포함돼 있는데, 종전까지는 유사한 성능의 칩에 개당 2.50~3달러에 공급되었다.

마이크로 콘트롤러는 가전제품, 사무기기 등에 투입돼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 되는데, Motorola는 이 부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업체로 알려져 있다.

퀀텀,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에 정보방 개설

미국 퀀텀사는 인터넷의 "세계광장(World Wide Web)"에 정보방을 개설하고 고객, 투자자, 연구원, 언론매체 및 컴퓨터 사용자 대중의 관심거리가 되는 최신 회사정보를 즉각 제공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컬러판 신문형식의 화면으로 제공되는 퀀텀 정보방에서는 회사소식과 재무정보는 물론 퀀텀사 제품의 자세한 소개, 퀀텀사와의 거래에 관한 안내, 기타 고객 서비스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퀀텀사의 저장제품들은 오늘날 디지털화 추세에 부응하는 높은 성능과 저장용량을 제공한다.

퀀텀사 「인터넷 1996 월드 엑스포지션」 공식 후원사로

퀀텀사는 정보화시대를 위한 국제전시회 「인터넷 1996 월드 엑스포지션」 (Internet 1996 World Exposition)을 공식 후원한다고 발표했다.

동 전시회는 인터넷에 정부 및 공공 프로그래밍을 공급하는 비영

리 "사이버스테이션"(Cyberstation)인 「인터넷 다중방송서비스」(IMS : Internet Multicasting Service)가 주관한다.

노던 텔레콤, 중국 통신업체와 네트워크 확장 계약 체결

세계 최대의 통신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중국 통신 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카나다의 노던 텔레콤사는 최근 중국의 운남, 지린, 충칭 통신사무소 등과 DMS 디지털 스위칭 시스템 구매 계약을 잇따라 체결, 중국에서의 통신서비스 네트워크를 크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 중국 지방 통신사무소들과의 계약규모는 미화 5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CCS7(Common Channel Signaling System 7)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노던 텔레콤사의 이번 네트워크 확장 구매 계약을 통해 약 50만 명의 해당지역 중국인들이 새로이 전화 서비스 및 전화선을 이용한 통신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DO, Matsushita 게임기 마케팅 강화

3DO는 자사의 게임기와 소프트웨어 타이틀을 일본에서 홍보하기 위해 일본의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가 향후 두

달간 1,5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DO에 따르면, Matsushita는 라디오, TV를 통한 퀴즈 쇼와 신문, TV광고를 통해 3DO 게임기를 일본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3DO의 게임기는 지난 1993년 10월 발표된 이래 지금까지 약 35 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Sega, Sony 등이 최근 공급하기 시작한 경쟁 제품들의 판매 실적에도 미달하는 것이다. 업계 분석가들은 3DO 게임기의 매출부진은 가격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Matsushita산하 Panasonic은 3DO의 게임기를 699 달러에 처음 시판했다가 작년 4월에는 499 달러로 가격을 인하시켰으며, 지금은 399 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한편 3DO는 현재 공급되고 있는 32-bit 게임기를 PowerPC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62-bit 버전으로 대체, 금년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C-CUBE, Matsushita에 MPEG-1 칩 공급

C-Cube Microsystems는 자사의 MPEG-1 방식 비디오 디코더 칩을 일본의 Matsushita 자체, 비디오 CD 플레이어 신제품 네개 모델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C-Cube에 따르면, 금년중 약 320만대의 비디오 CD

플레이어가 판매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C-Cube의 비디오 디코더 칩은 대량 공급시 개당 35 달러에 판매된다. Matsushita는 "Panasonic" 상표를 부착한 비디오 CD 플레이어를 4월부터 일본에서 시판할 예정이다.

VLSI, "WILDCAT" 칩세트 공급

VLSI Technology는 Pentium급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Wildcat" 칩 세트를 개발, 세트당 35 달러에 대량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 칩세트는 Intel의 "Pentium", Cyrix의 "M1", "Advanced Micro Devices (AMD)"의 'K5' 프로세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EDO(Extended Data Out) DRAM을 지원한다.

또한 VLSI는 Pentium 기종 노트북 PC에 사용할 수 있는 "Eagle" 칩세트를 개발, 2/4분기부터 시제품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agle 칩세트의 대량 공급 가격은 세트당 68 달러로 책정될 전망이다.

Philips Semi, 멀티미디어 시장 본격 공략

Philips Semiconductors가

멀티미디어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Philips는 General Magic의 소프트웨어에 기초한 2세대 휴대형 개인통신기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 PDA)에 사용될 칩세트와 VLIW(Very Long Instruction Word)방식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칩 "TriMedia"를 개발하고 있다.

Philips는 MIPS R3000 아키텍쳐에 입각한 두 종류의 PDA 칩 세트를 금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 칩세트에는 아날로그 전화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는 ASIC(Application-Specific Intergrated Circuit)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Philips는 TriMedia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를 오는 6월 발표하고, TriMedia 칩 시제품은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AMD, Cyrix : 개방형 콘트롤러 기술 개발

Advanced Micro Devices (AMD)와 텍사스주 Richardson에 있는 Cyrix는 이들이 개발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뿐 아니라 Intel의 P6 와도 호환성을 갖춘 "Open Programmable Interrupt Controller (Open PIC)"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멀티프로세서 방식 PC 서버에 사용되는 아키텍처로서, Intel의 "P6 PIC"가 업계 표준으로 정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됐다. Intel은 멀티프로세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주요기능을 P6 프로세서에 내장, 시스템 개발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성능 서버 시장을 주도한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Cyrix와 AMD는 P6를 채택했을 때보다 시스템 주기판 설계가 용이하고 생산 비용도 저렴하게 해주는 방안으로 Open PIC 사양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용되는 개방형 버스 프로토콜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Phoenix, 휴대형 PC용 BIOS 개발

Phoenix Technologies는 Microsoft의 "Windows95" 운영 시스템에 포함된 "Plug-and-Play" 기능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휴대형 PC용 BIOS(Basic Input/Output Software)를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Phoenix에 따르면, AT&T Global Information Solutions (GIS)가 Phoenix의 BIOS를 라이센스, "AT&T Globalyst" PC 라인에 채택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약 500만 달러 상당의 계약

을 체결했다.

또한, Fujitsu, Seiko Instruments 등의 업체들도 Phoenix의 BIOS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IBM, 네트워크 서버 신제품 개발

IBM은 네트워크 서버 신제품 "Server 320"과 "Server 720"을 발표했다. 이들 두 기종에는 각각 네 가지의 모델이 포함돼 있으며, 1~4개의 Pentium 프로세서가 장착된다.

이들 신제품의 시판 가격은 4,800~3만 9,000 달러로 책정됐다.

또한 IBM은 PC 네트워크 관리용 소프트웨어 "NetFinity"의 새 버전도 발표했다. 서버 시장은 빠른 속도로 규모가 확장되고 있고 탁상용 PC보다 높은 이윤율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제까지 IBM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기종을 제공하지 못해 Compaq, Dell등의 경쟁사들에 시장을 빼앗겨 왔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IBM은 작년에 서버 운영팀을 신설하고 신제품 개발을 추진했다.

독일 VOBIS, IBM "PC-DOS" 채택

Vobis Computer는 자사 제품

에 Microsoft의 "MS-DOS" 대신 IBM의 PC-DOS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가을부터 Vobis는 자사의 모든 PC에 Microsoft의 "Windows"와 IBM의 "OS-2"를 모두 설치해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PC를 30만대 출고 시켰다.

이에 따라 IBM OS-2의 독일 시장 점유율은 40%에 이르고 있다.

반면, OS-2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5%에 미달하고 있다.

유럽 PC업계, 금년 시장 성장 낙관

유럽 시장에서의 금년도 PC업계 매출액은 1,442억 달러를 기록, 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IDC에 따르면 작년 4/4분기 중 유럽 시장에서의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매출액은 419억 달러를 기록 1993년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했으며, 금년 1/4 분기에는 9.9%, 2/4분기에는 7.3%에 해당하는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전기간 동안 유럽의 PC업계는 5.5%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었다. 유럽 PC 시장에 대한 낙관적 예측은 독일이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비롯,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 근거를 두

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에 진출한 PC업체들의 대부분이 제품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Digital Equipment는 100만대의 PC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을 최근 스코틀랜드에 완공했다.

일본의 Fujitsu와 제휴하고 있는 영국업체 ICL PLC는 금년도 PC 매출액을 30%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독일 Siemens AG 산하 컴퓨터 업체 Siemens Nixdorf는 향상된 경영실적을 CeBit 전시회에서 발표했으며, 이태리의 Olivetti 도 금년부터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NEC, 휴대형 정보단말기용의 64비트 RISC형 MPU 개발

NEC는 휴대형 정보단말기 등 바테리 구동기기용으로 1W당 3D5 MIPS와 세계최고의 성능/전력비를 실현한 MIPS Architecher의 64비트 RISC형 프로세서 「UPD 30100GC-40」(애칭=VR4100)을 개발, 6월부터 샘플출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신제품은 저소비전력 이면서 고성능, 다기능화가 요구되는 휴대형 정보 단밀기 등을 목표로 개발했다.

CPU 코어는 약 1500MIPS/W을 실현했으며 주변회로 등을 포

함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서는 CPU의 동작상황 등에 따라 동작 제어를 한 것으로 소비전력은 3.3V, 40HH8작동시에 120mW, 2.2V, 20HH8 작동시에 27mW를 실현했다.

한편 스탠바이 모드, 서스펜드 모드, 하이바네트 모드의 3종류의 저소비전력 대기모드를 구비하고 있으며 또 MIPS, Architecher의 RISC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VR 시리즈」(R와 호환성(유동소수점 명령 제외)을 가지며 MIPS 대응의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도시바, Book형 퍼스컴 CD-ROM 탑재 등 2기종 5모델 미·유럽에서 발매

도시바 아메리카 정보시스템사와 도시바 유럽사는 2배속의 CD-ROM 구동장치 탑재의 Book형 퍼스컴 「T2150CD」 시리즈 등 2기종 5모델을 3월 6일부터 판매 개시했다.

동기는 독일 하노버에서 개막된 정보통신전 「세비트」에서 전시되었다.

T2150CD시리즈는 CPU는 「SL 엔하스트 486DX4」(75MM8)을 탑재 8MB의 메인메모리, 500MB의 HDD, FM음원과 마이크, 스피커를 내장하고 있다.

또 동시리즈 중 T2150 CDT는 10.4인치 TFT칼라 LCD를 채용,

약 6만 5,000색을 표시할 수 있다.

또 보급모델로서 「T2100」 시리즈 3모델도 동시에 발매되었다.

보급모델의 CPU는 「SL 엔하스트 486DX2」(50JJ8)가 사용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 불특정통화자의 전화음성, 인식 응답장치 시판

미쓰비시전기는 업계최초로 전화음을 입력한 불특정통화자 음성인식으로 십만대 단위(동시인식 일천단어)의 대여취 인식 가능한 음성인식 응답장치 「Melavis(메라비스)」를 3월 28일부터 판매(출하)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가격은 기본부(전화회선 1회선 표준)가 360만엔 증설 채널이 140만엔, 판매목표는 앞으로 3년간으로 5백대 이상, 「Melavis」는 일반의 이용자가 전화로 통상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직접 발성한 단어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인식하는 단어는 동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음소판 모델」의 채용으로 자유로 설정할 수 있다.

해·외·업·계·소·식

더우기 LAN를 표준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 인식가능한 전화회선을 복수 접속 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음성의 인식응답기능을 갖는 다양한 시스템의 구축 기준 시스템에의 편입도 용이하게 실현 할 수 있다.

후지쯔, 16M DRAM 증산

후지쯔는 '95년 9월이후 16MDRAM의 생산량을 월 80만개에서 300만개를 생산, 세계 시장 점유률을 10%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4M DRAM에 대해서는 현재 월간 800만개 수준의 생산량을 1년간 유지할 방침이다.

동사는 현재 이와테공장과 영국 FML, 후지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미에 공장 등에서 16M DRAM을 월간 80만개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테 공장에서 생산능력을 증강하고 FML에서 중점 생산하고 있는 4M DRAM을 16M DRAM으로 교체해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의 DRAM시장은 1M DRAM에서 256M DRAM까지 용도에 맞게 다세대가 공존할 것이라고 하는 판단에서 칩사이즈의 축소화 등에 의해 증산해온 4M DRAM의 생산량도 이미 월간 800만개 규모에 달하고 있지만 향후 1년간은 이 생산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니, 용량 15GB 향상된 12인치 광 디스크 구동장치 개발

소니는 디스크 1매의 용량을 양면으로 업계최대의 15GB(동사 종래 기종은 6.55GB)로 향상시킨 직경 12인치 초기형 광디스크 및 구동장치, Auto Changer를 개발했다.

문자·정지화·동화상 정보를 장기간 안정되게 보존하기 위한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서 5월 1일부터 발매한다.

디스크 1매로 신문 약 10년분의 정보를 Full Image로 판독이 가능하다.

WDD-531는 광학 Pick up을 2개 탑재, 디스크의 양면으로 동시에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디스크를 바꾸지 않고 15GB 용량의 데이터에 Access하는 것으로 데이터 전송 rate는 기존 기종보다 약 3배가 높은 매초 2.7MB(최대)이다.

또한, WDA-E550는 최대 76매의 디스크(1.1테라B)을 수납하는 Auto changer로 전용의 광 디스크드라이브(WDD-530)을 최대 4대까지 탑재 할 수 있다.

마쓰시다전기, 세계 최초 동화상 Server 기술 개발

세계에서 처음으로 TPC/IP, NFS의 업계표준 Computer

Network의 환경상, Solaris OS 탑재의 SPARC 워크스테이션 상에서 자유로 동화상 데이터를 취급 할 수 있는 동화상 Sever 기술 「Video NFS」을 개발하여 국내에 상품화 할 예정이다.

Computer Server를 이용하여 동화상 Data를 단말에 송신하는 종래 기술로서는 영상이 도절되어 버려 CATV용의 비디오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 네트워크 및 전용 단말이 필요했다.

또한 복수의 단말에 동시 송출하는 동화 서버 기능을 TCP/IP, NFS의 Computer 네트워크 환경상 및 Solaris OS 탑재의 SPARC 워크스테이션상에서 실현했다.

기존의 LAN 환경에서 접속된 각자의 퍼스컴(NFS 소프트탑재)에서 자유로 동화상을 이용할 수 있는 이외 인터넷에서의 동화이용을 가능케 했다.

서버에 CD-ROM 등의 동화 데이터를 격납한다면 문자 정지화와 더불어 동화상을 데이터 베이스로서 네트워크를 개입하여 복수의 퍼스컴 단말로부터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Solaris OS 채용에 의해 서버 상에서 SPARC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이 가능하다.